August 2026 No. 2

웹진
동동

東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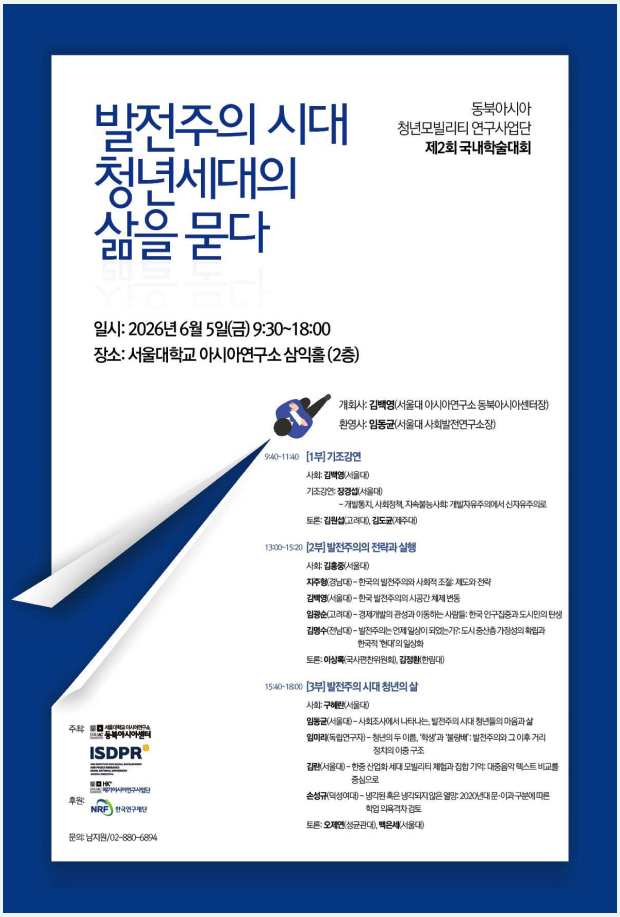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센터 · 동북아시아 청년 모빌리티 연구사업단
5-8월 학술행사 소개

움직이지 못하는 몸, 움직이는 돈: 청년 노동-투자자의 기투
류연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두 개의 인식표를 걸고 살아가기—'이대남'과 '사회학 전공자'
홍원준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동북아센터 연구보조원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청년모빌리티연구사업단

동북아시아센터 · 동북아시아 청년 모빌리티 연구사업단
제2회 국내학술대회『발전주의 시대 청년세대의 삶을 묻다』





- 일시: 2026년 6월 5일(금) 9:30~18:00
-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 공동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학술대회 소개〉

동북아시아센터는 6월 5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아시아연구소 HK+ 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과 함께 "발전주의 시대 청년세대의 삶을 묻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였다. 동북아시아 청년모빌리티 연구사업단의 제2회 국내학술대회로 열린 이번 행사는 김백영 센터장의 개회사와 임동균 소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장경섭(서울대)의 기조강연과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장경섭은 "개발통치, 사회정책, 지속불능사회: 개발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적 개발국가가 개발자유주의를 거쳐 신자유주의로, 종국에는 지속불능사회의 위기로 이어진 과정을 짚었다.

2부 "발전주의의 전략과 실행"에서는 지주형, 김백영, 임광순, 김명수(발표)가 한국 발전주의의 사회적 조절 양식, 시공간 체제의 변동, 국내이주민의 도시 적응, 중산층 생활양식의 형성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3부 "발전주의 시대 청년의 삶"에서는 임동균, 임미리, 김란, 손성규(발표)가 사회조사로 본 청년의 인식 변화, 거리정치에서의 청년 주체성, 한중 산업화 세대의 이주 경험과 대중음악, 입시 경쟁 속 학업 의욕 격차 등을 다루며 발전주의가 청년들의 삶에 남긴 궤적을 살펴보았다.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학술대회는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학술대회 차례

[1부] 기조강연

사회	김백영(서울대)	
기조강연	장경섭(서울대)	개발통치, 사회정책, 지속불능사회: 개발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토론	김원섭(고려대), 김도균(제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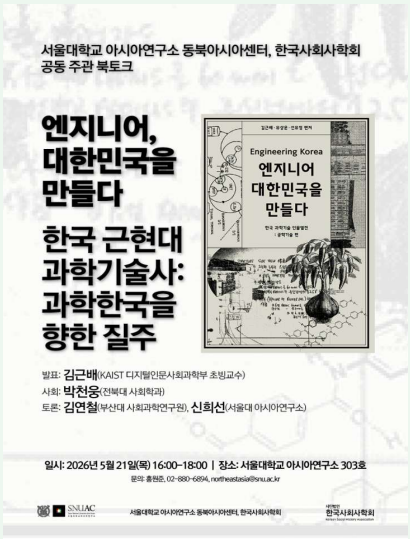
[2부] 발전주의의 전략과 실행

사회	김홍중((서울대)	
발표1	지주형(경남대)	한국의 발전주의와 사회적 조절: 제도와 전략
발표2	김백영(서울대)	한국 발전주의의 시공간 체제 변동
발표3	임광순(고려대)	경제개발의 관성과 이동하는 사람들: 한국 인구집중과 도시민의 탄생
발표4	김명수(전남대)	발전주의는 언제 일상이 되었는가?: 도시 중산층 가정성의 확립과 한국적 '현대'의 일상화
토론	이상록(국사편찬위원회), 김정환(한림대)	

[3부] 발전주의 시대 청년의 삶

사회	구혜란(서울대)	
발표1	임동균(서울대)	사회조사에서 나타나는, 발전주의 시대 청년들의 마음과 삶
발표2	임미리(독립연구자)	청년의 두 이름, '학생'과 '불량배': 발전주의와 그 이후 거리정치의 이중 구조
발표3	김란(서울대)	한중 산업화 세대 모빌리티 체험과 집합 기억: 대중음악 텍스트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4	손성규(덕성여대)	냉각된 혹은 냉각되지 않은 열망: 2020년대 문·이과 구분에 따른 학업 의욕격차 검토
토론	오제연(성균관대), 백은세(서울대)	

동북아시아센터 · 동북아시아 청년 모빌리티 연구사업단 5-8월 기타 학술행사 소개



〈북토크: 엔지니어, 대한민국을 만들다(2026.05.21)〉

김근배, 유상운, 선유정의 편저인 〈엔지니어 한국을 만들다〉는 한국 사회의 토대가 된 공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한 30인의 엔지니어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식민지, 전쟁, 산업화, 세계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흐름 속에서 엔지니어들은 제한된 자원과 조건 속에서도 기술혁신을 이루며 선진 사회를 향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 책은 산업화 뒤에 감춰진 엔지니어의 거대한 여정을 드러내고, 나아가 공학기술 중심의 '엔지니어링 코리아'로 자리 잡은 현대 한국의 자화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했다.



〈콜로키움: 오가와 이토 사례를 통해 본 일본의 웰빙문학(2026.05.28)〉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는 멜리사 다 코스타, 비르지니 그리말디, 기욤 뮈소와 같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힐링 문학(feel-good literature)'이 큰 성공을 거두어 왔다. 가볍고 위로를 주는 작품을 특징으로 하는 이 장르는 프랑스에서 일본 문학의 이미지 또한 크게 변화시켰으며, 전후 시기의 어둡고 난해한 작가들과는 다른 성격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발표자가 오가와 이토를 사례로 일본 힐링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 힐링 문학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의 상품화 방식이 양자 간에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콜로키움: DMZ, A mobile fieldwork on the Korean metaborder(2026.06.16)〉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한국학 연구자인 발레리 줄레조(Valérie Gelézeau)가 최근 출간한 저서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DMZ) 현장연구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줄레조는 2024년 개방된 DMZ 평화의 길을 따라 약 500km를 도보로 횡단하며, 분단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DMZ가 지닌 공간적 특성과 삶의 풍경을 탐구했다. DMZ를 직접 걸으며 기록한 이 연구는, 갈등의 산물인 경계공간이 지닌 모순과 회복 가능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비무장지대를 단순한 분단의 상징이 아닌, 인간과 자연, 역사와 현재가 중층적으로 얽힌 공간으로 이해하고, 현장 연구를 통해 경계와 이동, 영토와 공존의 의미를 함께 성찰하는 자리가 되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 움직이는 돈: 청년 노동-투자자의 기투

류연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몸은 노동 현장에 있지만 정신은 금융 세계에 접속해 있는 상태는 이미 수많은 청년들이 보내는 하루의 기본값이다. 증권사 앱을 통한 주식 매매, 유튜브를 활용한 시황 분석, '경제 스터디'와 '임장크루' 등의 커뮤니티 참여, 근로소득 일부의 정기적인 ETF 적립은 오늘날 한국 청년들에게 일상화된 삶의 문법으로 정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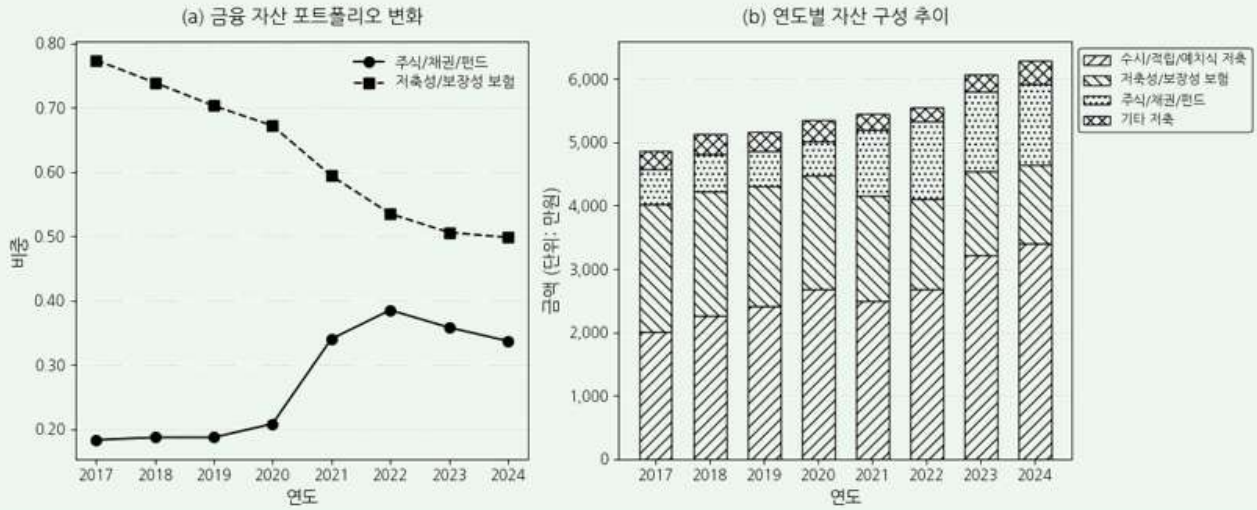
그간 이 현상은 흔히 IMF 위기 이후 반복되어 온 재테크 열풍의 연장이자, '영끌'이나 '빚투'와 같은 자극적 언표를 동원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치부되고는 했다. 이 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구체적으로는 이동과 정지라는 언어로 이들의 금융실천을 기술하고자 한다. 모빌리티의 시각에서 본 한국 청년들은 신체의 부동(不動)을 자산의 이동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테면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파이어족(FIRE)'의 선언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궤도로부터의 이탈이자 멈춤으로 보이지만, 그 정지 상태를 지탱하는 것은 24시간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이는, 각자가 사들인 자산 조각들이다.[1] 이하에서는 2025년 수행된 청년 노동-투자자 18명의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그 역학을 살펴본다.[2]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사회가 청년을 금융 주체로 재인식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했다. 초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확대로 촉발된 자산가격의 급등 속에서, 청년들은 삶의 새로운 기대를 투자에 투영하며 금융시장에 대거 유입되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0~30대 청년 가구의 금융투자 상품(주식·채권·펀드) 보유율은 2019년 18% 선에서 2021년 34%로 약 두 배 급증한 이후 2024년까지 30%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평균 보유 규모 역시 2020년 500만 원대에서 2021년 1,000만 원 선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뒤 상승세를 이어간다. 반면 저축성·보장성 보험의 보유율은 꾸준히 하락해, 청년 가구의 금융자산이 축적에서 운용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준다. 2022년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위축은 투자 열풍을 소강 국면으로 전환시킨 듯 했으나, 청년들의 집합적 금융실천은 일시적 사건으로 소멸하는 대신 이들의

1) 『동동』의 창간사(김백영, 2026)는 동북아시아 청년들의 기투적 실천을 행위의 주체성과 이동의 활동성이라는 두 변수로 유형화하면서, 히키코모리와 나란히 파이어족을 임모빌리티(immobility) 현상의 사례로 들고 있다. 이 글은 그 분류를 전제하되, 임모빌리티로 보이는 실천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자산의 이동성에 함께 주목한다.

2) 이 글은 글쓴이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청년의 노동-금융 주체성 형성 과정」(서울대학교 사회학과, 2026)의 일부를 웹진 지면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연령은 면접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삶에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동시대 청년 노동자가 처한 실존적 위기가 놓여 있다. 자산가격의 상승 속도가 노동소득의 증가율을 압도하는 '자산경제(asset economy)'(Adkins et al., 2020)의 심화 속에서, 대다수 청년에게 임금소득은 더 이상 주거나 가족 구성 등 기본적인 생애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형성 능력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때 청년들이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상향 이동은커녕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감각이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지원(31세)에게 대학 진학 이후 살아온 '서울'은 언제든 머무를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공간이다.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지 않으면 이 공간에서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생애과정의 각 단계에서 "한 번이라도 어그러지면 여기서 직업을 갖거나 살 수 없다"고 느껴 왔다. 지원의 투자 목적은 '내 집 마련'이고, 여기서 집을 산다는 것은 투기적 이익을 노리는 행위가 아니라 정주(定住)의 방편에 가깝다(류연미, 2021). 즉 이동하지 않을 자유를 구입하는 일인 것이다.

머무름의 자격이 위태로울수록 미래의 시나리오는 좁아진다. 이들이 보는 청년 노동시장의 현재, 나아가 일이라는 행위 자체의 미래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일자리를 잃고 다시 구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유지하더라도 소득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더라도 기술의 발전으로 그 직군 자체가 사라지거나. 어떤 시나리오든 그 끝은 빈곤이다. 설령 살아남아 정년까지 일한다 해도, 길어진 노후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였던 적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생애과정의 안전망은 처음부터 개인과 가족, 특히 저축 및 부채를 중심으로 한 자산의 역할에 의존해 왔다(김도균, 2018). 참여자들이 "우리는 '연금 없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노후 설계를 해야 된다"(준호, 34세)고 강조하거나 "젊었을 때부터 늙은 나한테 돈을 보내놔야 된다"(유진, 31세)고 말할 때, 그것은 국가의 보장 체계에 대한 깊은 불신과 공적 부조의 공백을 스스로 메워야 한다는 금융화된 책임감의 산물이다.

대신 움직이는 돈

노동하는 몸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에서, 청년들은 자산 조각을 대신 움직인다. 계약직 사무보조원인 은서(28세)의 사례가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은서는 정규직·계약직·파견직 일자리를 거쳐 단기 임시직에 이르는 이동을 반복해 왔으나, 그 이동은 어디로도 상승하지 않았다. 대신 은서의 자금은 국내 주식 단타에서 "더 파이가 큰 미국 주식으로" 옮겨갔고, 현재는 안정적인 우량주와 배당주, 성장주, 고위험군 주식을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자산 배치가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해 은서가 스스로 수행한 계산의 결과라는 것이다. 은서는 수년 내로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자신과 같은 일반 사무직을 포함해 거의 모든 노동자가 언제든 대체될 수 있으리라는 위기감을 내면화하고 있다. 이에 은서는 위험에 처한 '노동자'의 자아를 축소하고, 대신 그 기술을 소유한 '빅테크 자본'의 주주로 자신을 재위치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소외를 자본의 수익률로 보상받으려 한다. "저는 계속 AI나 로봇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신체는 제자리에 머문 채 수행하는 계급적 위치 이동인 셈이다.

이처럼 금융적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가치의 하락과 생애전망의 불투명성이라는 존재론적 위험을 관리하려는 청년들의 시도를 일종의 '실존적 헤징(existential hedging)'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래 헤징은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함께 취하는 투자전략을 뜻한다.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을 자산시장의 수익으로 방어하려는 이들의 행태가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개념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투자는 흔히 상상되는 것처럼 공격적이지 않다. 지원의 자산 목표는 단지 어제보다 손실을 내지 않는 것, "플러스 1원"이라도 더 버는 것이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수빈(32세) 역시 "무조건 예금 금리 이상만 되면 된다가 목표이기 때문에" 주가의 오르내림에 연연하지 않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바로 매도한다. 이들에게 금융투자는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삶에서 일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투자를 통해 노동하는 삶을 방어해야 한다는 초조함 역시 강력해진다.

멈추기 위한 질주

앞서 임모빌리티로 분류된 파이어(FIRE) 역시 청년들에게는 아직 정지태가 아니다. 그것은 극도의 가속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러나 가속하는 동안에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목적지이다.

개발자 하은(29세)의 목표는 40세가 되기 전에 충분한 금융소득 흐름을 만들어 은퇴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하은은 본업에 더해 주식·ETF·코인 투자, 사업자등록을 마친 스마트스토어, 수익화를 위한 블로그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한다. "일은 진짜 돈벌이 수단이고 자아실현 이런 거는 다른 걸로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하은에게서는 일종의 감정적 방어기제가 느껴지기도 한다. 개발이라는 자신의 숙련이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위협을 '애초에 일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는 자발적 무관심으로 치환하면서, 하은은 노동시장에서의 잠재적 탈락이 가져올 충격을 투자 실천으로 완화한다.

은서의 하루는 더 촘촘하다. 평일에는 풀타임으로,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무지출 챌린지'를 수행한다. 출근 전이나 근무 중 잠깐 여유가 날 때, 운동하는 10~20분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경제신문을 보거나 투자 관련 영상을 시청한다. 은서에게는 휴일조차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유휴 인력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시간으로 인식된다.

노후 대비의 시급함을 언급했던 유진은 시뮬레이션 끝에 이른 파이어 목표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제가 원하는 현금 정도가 매달 따박따박 나오게 구성을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주식에 투자가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대신 유진은 지금 다니는 IT 회사를 "그냥 시드를 충전시켜주는 용도"로 규정하고 "가늘고 길게 오래" 버티는 태도로 전환했다. 이는 '조용한 퇴사'와 외견상 닮았으나, 노동으로부터의 암묵적 이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드머니 채굴을 위한 전략적 인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이들은 임금노동이라는 쳇바퀴(신체의 이동)를 멈추기 위해 자본의 증식(금융자산의 이동)을 극도로 가속하거나 기약 없이 지속해야 하는 이중적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빨리 멈추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거나, 빠른 멈춤을 유예한 채 가늘고 길게 달리거나. 어느 쪽이든 정지는 오지 않는다.

누가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러나 자산의 모빌리티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가령 1인 자영업자인 현준(33세)은 "부모님 덕[집]을 받을 예정이긴 해서 약간 예외적"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주거 문제가 선결된 상태에서, 현준은 사업소득으로 마련한 여윳돈을 모두 주식 투자에 투입한다. 반면 원가족에게서 벗어나고자 이른 나이에 대출을 통해 오피스텔을 매매한 계약직 연구원 다빈(23세)은 정반대의 자리에 있다. 투자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경제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달이 상환을 하느라 현금이 거의 없어서 애초에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현금이 부족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기도 했다.

이는 시드의 위계가 청년들의 미래 기획에 어떠한 격차를 야기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자산이 있는 이들에게 시간은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아군이지만, 빚을 갚아야 하는 이들에게 시간은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적이다(Adkins, 2018). 결국 시드의 격차는 금액의 차이를 넘어 금융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주권의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이 격차는 다시 신체의 이동으로 되돌아온다. 대구에서 1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갓 시작한 지훈(26세)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이하다. 지훈은 최근 합격한 자동차 대기업 공장의 촉탁 계약직으로 일하기 위해 울산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2년 살짝 안 돼서 일을 하고 나오는 거지만 돈을 많이 주고 워라밸도 괜찮"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끝이 정해져 있는 이동이다. 같은 시기 자산 역시 국내 주식과 코인에서 큰 손실을 본 뒤 전부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옮겨가기로 했다. 시드가 부족한 청년에게 노동과 자산은 모두 임시적으로 조율된다. 이 조율은 유연해 보이지만, 실상 극도의 불확실성을 개별적으로 감당하는 일이다.

기투와 잔인한 낙관 사이에서

이러한 실천들은 분명 기투다. 청년들은 주어진 조건에 응전하며 자신의 시간과 자원, 정동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붕괴된 표준적 생애주기를 대체할 자신만의 시간표를 조직한다. 동시에 이 기투는 로런 벌랜트가 말한 '잔인한 낙관(cruel optimism)'의 구조 위에 놓여 있다. 애착의 대상이 애당초 그 애착을 형성하게 만든 목표 달성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에 낙관은 잔인해진다(벌랜트, 2024).

그러나 동시대의 금융 자본주의적 변화는 이 낙관의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한다. 청년 노동시장의 객관적 조건은 점점 더 열악해져 왔고, '미국 주식'이나 '서울 부동산'과 같은 상승자산의 가치는 꾸준히 올라왔다. 그리고 누군가는 실제로 생존을 건 이동에 성공하기도 한다. 다만 이 낙관은 선별적으로 잔인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드머니의 규모와 부채 여부라는 출발선에 따라 미래를 기획할 시간 주권이 전혀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청년 노동-투자자들도 이러한 모순을 모르지 않는다. 이들은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도, 자신의 불리한 출발선도 정확히 계산한다. 그럼에도 뛰어드는 것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삶이 그러지 않는 삶보다는 최소한 나으리라는 쪽에 베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년의 경제적 취약성을 개인의 선택과 그 성패의 문제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이 상황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다. 지원이 집을 사는 것이 정주의 방편이고 유진이 회사를 다니는 것이 시드의 조달이라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청년을 금융시장으로 불러들일 유인이 아니라 노동만으로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움직이지 않을 자유와 움직일 자유가 함께 보장되지 않는 한, 청년들의 금융화된 기투는 계속해서 각자만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도균. 2018.『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 복지의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류연미. 2021.「함께 머물러 살기: 서울 청년 여성들의 공동주거전략」. 조문영 외,『문턱의 청년들』. 책과함께.

류연미. 2026.「한국 청년의 노동-금융 주체성 형성 과정: 제도, 담론,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벌랜트, 로런. 2011/2024.『잔인한 낙관』. 박미선·윤조원 역. 후마니타스.

Adkins, L. 2018. The Time of Money. Stanford University Press.

Adkins, L., Cooper, M., & Konings, M. 2020. The Asset Economy. Polity Press.

두 개의 인식표를 걸고 살아가기 —‘이대남’과 ‘사회학 전공자’

홍원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동북아센터 연구보조원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실 일이 생겼다. 참석자 대부분이 남자였다. 그러다 갑자기 (밝힌 적도 없는) 내 정치 성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해?”라는 질문을 던졌다. 아마 농담이었겠지만,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고 당황함을 감춘 채 재빨리 답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 그냥 그렇게 답해버리고, 얼른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렇게 답한 덕분인지 논쟁은 금방 사그라들었다. “에이, (원준이) 장교출신인데”

나는 지난해 6월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지금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주거문제와 부동산금융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나는 요즘 널리 칭해지는 것처럼 ‘이대남’이다. 이대남은 20대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단순히 나이를 넘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지향, 불만과 결핍이 그들에게 덧씌워지는 표상과 결합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파편화, 보수화, 안티페미니즘, 공정성과 같은 키워드들이다.

‘남성성’에 물들다

또 다른 에피소드다. 내가 근무하던 부대에 한 미군 예비역 장교가 방문할 일이 있어서 우연히 통역을 맡은 적이 있었다. 내가 곧 전역해서 대학으로 돌아가 사회학을 계속 공부할 것이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Cavalry man studying sociology!” 사회학을 공부하는 기병이라는 뜻이다. 내가 속해있는 유형의 부대를 미군들은 기병대(cavalry)라고 불렀다. 그는 또 나에게 ‘사회학에선 어떤 걸 연구하냐’고 물었고, 나는 ‘불평등이나 계급문제, 소수자 차별, 젠더연구 등 다양한 연구분야가 있다’고 소개했다. 가만히 듣던 그는 나에게 말했다. “오, 젠더연구는 하지 말길 바란다.” 그 이유를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 육사 출신의 예비역 중령이었고, 성별은 남성이었다.

학부 시절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던 관념들이 당연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밝혀내는 방법을 배웠다. 이에 따르면 남성성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당연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고 그 남성성이 사회적 억압과 지배, 폭력의 역사를 만든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나는 이를 공부하며 나와 내가 속해있는 집단을 한 걸음 떨어져 성찰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그랬기에 나는 순진하게도 입대하면서 내가 군대의 문화에 물들지 않은 채 군복무를 마치고 연구 공동체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단순한 군복무도 아니고, 지휘자의 신분으로 2년을 지내면서 나는 어쨌거나 남성성을 도구로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휘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법을 배우면서 군이라는 집단에 빠르게 동화되고 적응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남성성은 대체로 기준선을 긋고 그를 달성하는 자들과 미달하는 자들을 구분한다. 나는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는 부하나 동료들을 답답하다고 느꼈고 질책하기도 했다. 육체적인 강인함이 리더의 자격이라고 생각해 부단히 단련했던 일은 좋았지만, 수행의 과정에서 체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하들을 때론 나약하다고 여겼다. 사실 여기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빼어나지 못했고 육체적 강인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 스스로가 저렇게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항상 합리적인 명분이 있었다. 나는 이뤄야 할 목표가 있는 지휘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어든 '군대물'이라는 남성성이 전역한 이후에 선명하진 않더라도 나에게서 제법 냄새가 났을 것이다.

남성성의 수행은 나에게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나는 그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남성성이 그어준 선에 도달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때가 많고, 내가 10대 시절부터 소속돼 있던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그러면서도 사회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후보생으로서 '이대남'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모순된 지향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렇게 나는 '사회학 전공자'와 '이대남'이라는 두 개의 인식표를 걸게 됐다.

어쨌거나 장교로 군생활을 했다는 경력은, 꼭 또래 커뮤니티가 아니라도 남성 집단에서 성원권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필요한 상황에서 나는 그 인식표를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 가령, 가족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촌수도 모르는 친척 아저씨가 내게 "사회학? 너 그럼 빨갱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나는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방패를 쥐게 된 셈이다. "에이, 저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나는 공산당과 페미니즘이 싫어요"

처음의 에피소드로 돌아가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친구의 농담에 내가 혼자 진지해져서는 당황했던 것은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사실 나의 또래집단 남성 친구들이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사뭇 진지하기보다는 진심과 농담의 경계를 흐리고 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내 친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진 않았겠지만, 이 방식은 넓은 확장성을 가지면서도 비판이 제기될 때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것으로 흘려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정치이론이나 군사전략이론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친구들이 원하는 짧고 명쾌한 답을 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물론 속으로 답답함을 삭인 채였다.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에서 적당히 살을 내어주고 지켜야 할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법을 대학에 입학한 이래로, 군에 입대해서도 계속해서 연습해 왔다.

이대남을 최근 보수화, 극우화의 표상으로 여기곤 하지만 나는 내 또래집단이 극우화되었다기보

다는 정치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가지기를 유보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나의 동성 또래집단이 분명한 반감을 품는 대상을 두 개 꼽아보자면 하나는 북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페미니즘이다. 민주평통에서 지난 6월 공개한 2030 대상 통일 여론조사에서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생각하는 2030세대는 남녀를 통틀어 49.8%로 절반에 육박했다. 누군가는 인격 형성기에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원인인지는 모르겠다. 어쨌거나 20대 집단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심은 대체로 강하고 이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내가 속해온 남성 또래집단에서 페미니즘은 거의 사이비종교를 대하듯 언급되곤 했다. 한 설문(시사인·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나친 페미니즘의 영향을 막기 위해 법규를 어기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문장에 20대 남성의 32%가 동의했다. 개인적 에피소드로 내 친구들에게 한 번은 '남성인데도 페미니즘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남자인데 페미니즘을 한다고? 그게 어떻게 돼?"라는 게 그들의 반응이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취업난으로 인해서, 또는 군 복무의 박탈감으로 인한 것으로 흔히 설명하지만,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청년 남성들의 정서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2021년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설거지론'이라는 담론이 퍼졌던 적이 있다. '경제력과 학력이 우수하지만 연애 경험이 적은 남성이 과거 연애 경험(정확히는, 성 경험)이 많은 여성과 결혼해서 기만당하는 상황'을 '설거지'에 비유한 이 담론이 제법 반향을 얻었지만, 사실 근대 이래로 유구하게 이어져 온 창녀-성녀의 이분법에 또 다른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담론의 소비를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길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는 이런 또래집단에 소속되어서 다른 자아를 숨긴 채 때로는 그들의 요구를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러다 다시 내가 소속된 연구 공동체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젠더 권력과 불평등, 이주민 차별과 장애 인권을 이야기하며 소수자들의 대안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집단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도 남성성을 위시로 한 사회적 정상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주류 남성성이 정상과 비정상의 선을 긋고 얼마나 많은 '비정상인'들을 차별하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비판한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스스로가 어떻게 이대남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대남으로서 스스로 자기성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을 인식표로 사용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속이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내 안의 남성성, 그리고 내가 속해있는 또래집단의 주류적 남성성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의 인식표를 들이미는 데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었다.

사회학을 공부하는 과정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했고 남성성은 그중 하나였다. 나는 젠더 연구자가 아니기에, 그 성찰이 아주 엄밀하고 섬세하지는 못했다. 또한 그 분해의 과정이 내가

지금까지 형성해 온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린 주류적 남성성의 요구들을 일소하는 작업이 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마도 앞으로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전히 나는 오래된 관계망에 연루되어 있고 남성 또래집단의 규범이 잔존한 채로 적당히 발을 걸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남성성과 젠더권력을 비판하는 일은 조금의 불편함과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동반해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다시 그 술자리로 돌아가서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거리를 둔 채 그때보다는 조금은 더 능숙하고 여유롭게 똑같이 대답할 것이다.

東動

‘동동’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 청년 모빌리티 연구사업단이 연3회(4월, 8월, 12월) 발행하는 웹진입니다. 신진 연구자를 포함한 필진의 글을 게재하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분석적 관점을 공유합니다.

※ 필자의 글은 본 연구사업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발행인: 김백영 **편집·디자인**: 다무라 후미노리, 손명은

표지 사진: 홋카이도 삿포로 히쓰지가오카 전망대의 W.S.Clark 박사 동상